

李白의 <行役>詩 初探*

최우석**

<목 차>

1. 머리말
- 2.李白 <行役>詩의 내용상의 분류
- 3.李白 <行役>詩의 창작상의 특색
4. 맺음말

1. 머리말

李白(701-762)의 詩集¹⁾에는 <行役>의 分類하에 20題, 24首의 詩歌가 실려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단순한 漫遊로 인한 이동이든 혹은 貶謫으로 인한 이동이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혹은 어느 특정한 곳에 머물며 보고 느낀 감정과 소회를 그려낸 것이다. 이백은 스스로 <廬山謠>에서 “오악의 신선 찾아 먼 길도 마다않고, 명산에 들어 놀기를 일생토록 좋아했네(五嶽尋仙不辭遠, 一生好入名山遊)”라고 읊은 바 있거니와, <金陵江山遇蓬池隱者>에서는 “명산에 노니는 것 사랑하노니, 몸은 명산 따라 멀리 노니네(心愛名山遊, 身隨名山遠)”라고 노래하는 등, 일생을 두고 수많은 명산대천을 두루

* 이 논문은 ‘韓國李白詩歌講讀會’의 발표와 토론을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동향 명예교수님의 고견과 심사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교열했음을 밝히며, 그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우송대학교 글로벌듀얼디그리학부 중국전공 조교수

1) 이 논문에서는 詹鐸의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10年)에서 수록한 원문을 그 저본으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찾아 다녔다.

실제로 고대 중국의 시인 가운데 이백처럼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시를 창작한 이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백은 약 5세 무렵 아버지를 따라 蜀 지방의 綿州昌隆縣(현재의 四川省 江油)에 정착한 후 약 26세까지 巴蜀 지역을 중심으로 吳越, 淮南, 洞庭湖, 金陵(현재의 南京市), 會稽(현재의 浙江省 紹興縣), 揚州 등의 지역을 漫遊했다. 약 27세의 이백은 安州(현재의 安陸市)에서 결혼 한 후 약 10여 년간 이곳에 머물면서, 襄陽에 잠시 머물기도 하고 太原, 崇山, 南陽, 安宜 등을 두루 유람 한다. 42세부터 44세까지의 약 3년 동안 長安에서 翰林供奉의 벼슬 생활을 잠시 했지만, 이후 이백은 또다시 유람의 길을 떠나게 된다. 약 47세에는 揚州, 金陵, 丹陽 등을 유람하고 金陵에 약 2년간 머물면서 江南지역을 유람하기도 했다. 이후 廬山에서 은거하기도 했으며, 永王 李璘의 막부로 들어가서 포부를 펼치고자 했으나 오히려 반군으로 몰려 尋陽의 옥에 갇히기도 한다. 57세에 옥에서 풀려난 이백은 夜郎으로 유배되었다가 59세에 사면을 받아 62세의 나이로 當塗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렇듯 이백은 일생을 두고 동서남북 종횡무진 만유와 유람을 거듭했다. 물론 이백은 발길이 닿는 곳 마다 흥이 일면 시를 지어 읊었다. 그의 詩集에 <登覽>과 <行役>의 시가 항목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경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자명하다.

이제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적으로 <행역>시편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한 편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고자, 이백의 <행역>편에 수록된 24首의 시를 대상으로 먼저 그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나아가 그 시가창작의 특색 및 예술성을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행역>시의 시가사적 의의를 탐구하고자 한다.

2. 李白 <行役>詩의 내용상의 특색

중국의 고대 시가 내용 가운데 '行役'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여행'을 의미하는 '行旅'와 兵役, 勞役 혹은 公務 등의 이유로 타 지역을 떠도는 '征役'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부류의 내용은 그 淵源이 《詩經》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주지하다시피, 《詩經》의 내용 가운데에는 전쟁에 참가한 '征夫' 혹은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의 입장에서 슬픔이나 고통을 토로하거나 혹은 부역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네의 입장에서 남편을 그리는 내용이 상당수 있다. 예를 들어, 《詩經·王風·君子于役》에 “우리 님은 부역 떠나고, 몇 날 몇 달인지 속절없네. … 우리 님은 부역 떠나시어, 목마름 굶주림 겪지 않으시기를 (君子于役, 不日不月. … 君子于役, 苟無飢渴)”이라고 하거나, 《詩經·小雅·鴻雁》에서 “길 떠도는 나그네, 들판에서 고생한다네(之子于征, 劬勞于野)”라고 한 것들은 모두 좋은 예이다. 또한 漢代에 이르러 <古詩十九首> 등에서는 失意한 나그네의 애환이 생동감 있게 표현 되어 있다. 한편 六朝 시대에 이르러, '행역'의 내용은 그 제재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다시 말해, 六朝의 陶淵明(365-427), 謝靈運(385-433), 謝朓(464-499) 등의 손을 거치며 이전에 주로 '征戰', '徭役', '仕宦'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를 방문하거나 혹은 名山大川을 유람하는 것 등의 범위로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의 작품은 떠도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산수경물을 清新한 풍격으로 대량 묘사하고 있어 후세 '행역'시의 典範이 되기도 하였다. 蕭統(501-531)의 《文選》에서는 <行旅>의 분류로 11명 시인의 31題, 35首의 詩作을 수록하고 있다.

이백의 <행역>시는 바로 위와 같은 전통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소통의 《文選》에서 <行旅>의 제목으로 분류했던 것을 이백은 <行役>으로 명명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백의 <행

역>에는 謝靈運式의 산수를 유람하는 ‘행려’의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안사의 난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지은 내용도 있고, 유배를 가는 도중에 지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정치의 장에서 득의 하지 못한 회재불우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기에 단순한 개인적 여행을 의미하는 <행려>의 제목 보다는 정치의 범주와 연관이 더욱 깊은 <행역>의 제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백의 <행역>시는 내용상 대략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공간을 이동하며 눈에 보이는 경물을 묘사하는 것에 치중한 山水紀行의 내용이다. 둘째는, 나그네 신세로 떠도는 가운데 느끼는 고향, 친구 혹은 임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셋째는, 산수를 유람하는 가운데 隱逸의 뜻을 드러내거나 隱者의 풍모를 흠모하는 隱逸 동경의 내용이다. 넷째는, 其他의 내용으로, 안사의 난으로 피난 가던 도중에 느끼는 憂國의 情, 여행 중에 느끼는 따뜻한 人情, 懷才不遇의 감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內容	山水紀行	나그네의 情懷	隱逸 동경	其他	計
篇數	9首	6首	3首	6首	24首

(1) 山水紀行

이백의 <행역>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山水紀行의 내용이다. 주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경물을 묘사하거나 혹은 이동의 여정을 묘사하는 것에 치중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夜下征虜亭>, <荊門浮舟望蜀江>, <下陵陽沿高溪三門六刺灘>, <上三峽>, <自巴東舟行經瞿唐峽登巫山最高峰晚還題壁>, <早發白帝城>, <秋下荊門>, <秋下荊門>, <宿鰕湖> 등, 모두 9수의 詩作이 이에 포함된다. 먼저

이 가운데 <과동에서 배를 타고 구당협을 지나 무산의 최고봉에 오르고, 저녁에 돌아와 벽에 시를 쓰다(自巴東舟行經瞿唐峽登巫山最高峰晚還題壁)>를 살펴보자.

江行幾千里,	강 따라 몇 천리 길
海月十五圓.	강위로 달이 열다섯 번 둥글었었네.
始經瞿唐峽,	비로소 구당협을 지나
遂步巫山巔.	드디어 무산 봉우리에 올랐네.
巫山高不窮,	무산은 높기가 그지없어
巴國盡所歷.	파땅이 모조리 역력하구나.
日邊攀垂蘿,	해 언저리에서 덩굴 부여잡고 오르는 듯
霞外倚穹石.	노을 밖으로 큰 바위에 기댄 듯.
飛步凌絕頂,	날쌔 걸음으로 정상에 올라
極目無纖煙.	멀리 바라보니 실안개조차 없네.
卻顧失丹壑,	고개 돌려 보니 붉은 계곡은 보이지 않고
仰觀臨青天.	고개 드니 푸른 하늘 눈 앞에 펼쳐졌네.
青天若可捫,	푸른 하늘은 마치 손에 잡힐 듯한데
銀漢去安在?	은하수는 흘러가 어디에 있나?
望雲知蒼梧,	흰 구름 바라보니 창오산 있는 곳을 알겠고
記水辨瀛海.	물길을 더듬어 영해 바다를 분간하겠네.
遇遊孤光晚,	두루 유람하는 가운데 외로운 빛 저물어가니
歷覽幽意多.	하나하나 보며 품은 뜻 많기도 해라.
積雪照空谷,	쌓인 눈이 텅 빈 계곡 밝게 비추고
悲風鳴森柯.	슬픈 바람이 뻑뻑한 수풀가지 사이에서 우네.
歸途行欲曠,	돌아가는 길에 들어서자 석양이 지려는데
佳趣尙未歇.	아름다운 흥취는 여전히 식지 않는구나.
江寒早啼猿,	차가워진 강에 아침부터 원숭이는 우는데
松暝已吐月.	소나무는 어둠에 문히며 밝은 달을 토해 놓았네.
月色何悠悠!	달빛은 얼마나 그윽한가!
清猿響啾啾.	처량한 원숭이 울음소리 구슬픈데.
辭山不忍聽,	차마 들을 수 없어 산을 떠나
揮策還孤舟.	지팡이 휘두르며 외로운 조각배로 돌아간단네.

일반적으로 이 시는 乾元 2年(759년) 초봄 夜郎으로 유배되어 가는 도중,

長江의 三峽 중의 하나인 瞿塘峽을 지나다가 巫山에 올라 그 감회를 읊은 것으로, 주로 눈앞에 펼쳐진 경물의 묘사에 큰 폭을 할애하고 있다. 제1구부터 제4구까지는 제목의 ‘과동에서 배를 타고 구당협을 지나(自巴東舟行經瞿唐峽), 무산 최고봉에 오르는(登巫山最高峰)’ 과정을 요약하여 전체 시상을 압축적으로 제시하였다. 제16구까지는 무산의 최고봉에 올라 멀리 바라본 경치를 세밀하고 낭만적으로 묘사하였다. 제17구부터 마지막까지는 제목의 ‘저녁에 돌아와 벽에 시를 쓴(晚還題壁)’ 부분으로, 저녁 경치의 묘사와 함께 쓸쓸한 분위기를 그려 내었다. 이 시는 전편에 걸쳐 눈앞에 펼쳐진 경물을 묘사하는 것에 치중한 山水紀行詩로, 특이한 내용은 없더라도 그 경물 묘사가 매우 세밀하고 신묘하다. 《嚴評本》에 기재된 明人의 평어에도 “시구의 조탁이 세련되고 깔끔하며, 비록 특이한 점은 없더라도 세밀하게 감상할 때 또한 나름의 맛이 있다”²⁾라고 했다.

이밖에도, <荊門浮舟望蜀江>에서는 巴 땅에서 楚 땅으로 들어갈 때 荊門山을 지나며 펼쳐진 경물을 묘사하고 있고, <上三峽>에서는 三峽을 거슬러 올라가는 험난한 협곡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으며, <早發白帝城>에서는 夜郎으로 유배 가다가 사면을 받아 다시 강릉으로 돌아가며 그곳의 경물과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宿鰲湖>에서는 鰲湖에서 하룻밤 묵으며 비가 그친 후의 야경을 묘사하는 등, 이 부류의 詩作에서는 주로 눈앞의 경물을 묘사하거나 혹은 이동의 여정을 묘사하는 것에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이른바 山水紀行詩의 특색을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2) 나그네의 情懷

《詩經》 이래로 나그네가 되어 고향을 그리거나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는 내용은 가장 오래된 ‘행역’의 주제로 볼 수 있다. ‘산수기행’의 내용에 이어 두

2) 《嚴評本》載明人批：“琢句細鍊調淨，雖無奇，細玩亦自有味”(詹鍈，《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3129쪽)

번째로 많은 작품이 이에 속하는데, 주로 객지에서 나그네의 신분으로 고향, 친구, 임 등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타향에서 겪는 나그네의 수심을 달래는 내용들이다. <客中作>, <太原早秋>, <江行寄遠>, <奔亡道中>其二, 其四 및 <夜泊黃山聞殷十四吳吟> 등이 모두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태원의 이른 가을(太原早秋)>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歲落衆芳歇,	한 해도 반이 지나 온갖 꽃 시들고
時當大火流.	대화성(大火星)도 서쪽으로 기우는 때라네.
霜威出塞早,	변새 밖에는 이른 서리 매섭고
雲色渡河秋.	황하 건너 구름은 가을빛이네.
夢遶邊城月,	꿈길은 변성의 달을 감돌고
心飛故國樓.	마음은 고향 집으로 날아가네.
思歸若汾水,	돌아가고픈 생각은 분수(汾水)와 같아
無日不悠悠.	밤낮으로 쉬지 않고 흘러가누나.

이 시는 開元23年(735) 5월부터 약 1년 동안 친구 원연(元演)의 초대로 太原(현재의 山西省 太原市)에 가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 4구는 일찍 찾아 온 태원의 이른 가을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후반부 4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나그네의 심정을 분수(汾水)에 빗대어 드러내었다. 이 시에 대해 清代의 《李詩直解》는 “이 시는 태원에서 이른 가을을 느껴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생각을 한 것이다. 세월이 영락하여 모든 꽃들이 시들고 대화성이 서쪽으로 기우는 때임을 말하고 있다. 차가운 서리의 위엄은 변새 밖에서 이미 일찍 시작 되었고, 차가운 구름은 강을 넘어 와 가을이 되었다. 꿈은 비록 변성을 맴돌더라도 마음은 옛 정원을 날아간다. 무릇 태원을 떠돌다 머물 때 가을이 오니 적막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마치 분하의 강물이 하루도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과 같다”³⁾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奔亡道中>其二, 其四에서는 “첩첩이 관문으로 길이 막혔으니, 언

3) 逸名, 《李詩直解》: “此詩感太原之早秋而思歸也。言歲當搖落, 則衆芳凋謝, 正值大火西流之時也。嚴霜之威, 出塞已早。寒雲之色, 渡河成秋。夢雖遠於邊城, 心則飛於故園。蓋旅寓太原, 秋來寂寞, 思歸之心, 若汾河之水, 無日不悠悠。”(詹鏞,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104쪽)

제라야 돌아갈 수 있을까(萬重關塞斷, 何日是歸年. <其二>)"라고 하는 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그리움의 情懷' 부류에는 타향에서 특정한 인물을 그리워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배 타고 강위를 가면서 멀리 있는 이에게 부치다(江行寄遠)>을 살펴보자.

剡木出吳楚,	배는 오초 땅을 향해 내려가니
危檣百餘尺,	높은 돛대 백여 자나 되네.
疾風吹片帆,	질풍이 돛폭에 거세게 불어
日暮千里隔,	해 저물 때 천 리 멀리 내려왔구나.
別時酒猶在,	헤어질 때의 술기운 아직 남아
已爲異鄉客,	벌써 타향의 나그네 되었네.
思君不可得,	그대를 생각해도 만날 수 없으니
愁見江水碧,	푸른 강물만 시름겹게 보노라.

혹자는 이 시가 開元13年(725)에 창작된 것으로 보기도 했으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⁴⁾ 이 시는 오초 땅으로 배를 타고 가면서 친구를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다만 그 친구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고증은 없다. 시의 첫 두 구절에서는 배를 타고 오초 땅으로 들어가는 배경을 설정했다. 이어서 네 구절은 배를 타고 떠나가다 어느덧 타향의 나그네 신세 되었음을 드러내었다.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타향의 나그네 신세로 친구를 그리워하기에 그 그리움은 배가 되는 듯하다. 이 시에 대해 《唐宋詩醇》은 “글자마다 진실하며, 정감이 지극하고 문체 역시 지극하다”⁵⁾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밖에, <客中作>에서는 “다만 주인이 나그네를 취하게 할 수 있다면, 어느 곳이 타향인지 알지 못하리(但使主人能醉客, 不知何處是他鄉)”라고 하거나, 혹은 <夜泊黃山聞殷十四吳吟>에서 “거나하게 취하자 강과 바다 같은 소리를

4) 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安注繫此詩於開元十三年, 謂爲本年赴江東途中寄蜀中友人之作.”(3138쪽) 참조.

5) 《唐宋詩醇》卷7: “字字眞至, 情至而文亦至.”(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138쪽)

노래하기에, 나그네 근심은 금세 술잔 속으로 사라지누나(半酣更發江海聲, 客愁頓向盃中失)”라고 하는 등, 술로 인해서 혹은 좋은 노래로 인해서 나그네의 수심을 잠시 잊는 경우도 있었다.

(3) 隱逸 동경

이백은 일생을 두고 隱者의 풍모를 흠모하고 隱逸에 대한 동경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名山을 유람하거나 絶景의 山水를 접할 때에는 수시로 은일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행역>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행역>시 가운데 <之廣陵宿常二南郭幽居>, <下途歸石門舊居>, <郢門秋懷> 등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영문에서의 가을 감회(郢門秋懷)>를 살펴보자.

郢門一爲客,	영문에서 한번 나그네 된 뒤로
巴月三成弦.	파 땅의 달은 세 번이나 이지러졌구나.
朔風正搖落,	북풍에 때마침 초목들 시드니
行子愁歸旋.	나그네는 고향 돌아갈 일로 수심에 젖네.
杳杳山外日,	어둑어둑 산 너머로 해는 지는데
茫茫江上天.	강위 하늘은 망망하더라.
人迷洞庭水,	나그네는 동정호에서 갈 길을 잃고
雁度瀟湘煙.	기러기는 안개 낀 소상강을 날아 건너네.
清曠諧宿好,	산림에서 은거함을 옛 부터 좋아했으나
緇磷及此年.	세파에 시달리며 이 나이 것 살아왔네.
百齡何蕩漾,	백 년 인생 부침은 얼마나 심한가
萬化相推遷.	만물은 끊임없이 바뀌어 옮겨가는구나.
空謁蒼梧帝,	헛되이 창오까지 찾아가 순임금을 찾아뵈고
徒尋溟海仙.	부질없이 바다를 건너가 명해의 신선을 찾았네.
已聞蓬岳淺,	일찍이 봉래의 바닷물이 얕아진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豈見三桃園.	어찌 삼천년마다 익는 선도를 세 번이나 보겠는가?
倚劍增浩嘆,	검을 차고 소리 높여 탄식 더하니
捫襟還自憐.	가슴을 부여잡고 스스로를 가련히 여기네.
終當游五湖,	끝내는 오호에서 노닐면서

濯足滄浪泉. 창랑의 샘물에 발을 씻으리라.

‘郢門’은 ‘荊門’으로 현재의 湖北省 江陵 일대이다. 이 시는 시인이 형주 일대를 유람하다가 지은 것으로, 창작 연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즉, 혹자는 開元27년(739)에 지은 것으로 보고, 또 다른 이는 乾元2년(759)에 지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 시는 먼저 고향을 그리워하는 나그네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평생 은일을 사랑했음을 고백 한 뒤, 끝내는 五湖를 노닐며 隱居 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之廣陵宿常二南郭幽居>에서는 “친구는 초가집에 머물고, 저녁 새는 버들 동산으로 돌아오네. 시와 술로 헤어지려니 못내 아쉬워, 강과 바다에 은거하겠다는 약속 마음 깊이 하네(故人宿茅宇, 夕鳥歸楊園. 還惜詩酒別, 深爲江海言)”라고 하거나, <下途歸石門舊居>에서는 “자유롭게 세상일과 멀리 떨어져서, 난새와 학을 타고 다시 더욱 멀어지려 하네. 어찌 하여 오래토록 권세가들 좇아 노닐며, 삶을 수고롭게 하여 헛되이 만금의 재산을 모으리오(悠然遠與世事間, 裝鸞駕鶴又復遠. 何必長從七貴遊, 勞生徒聚萬金產)”라고 노래하는 등, 모두 평소에 흠모해 마지않던 은일에 대한 동경을 유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4) 其他

이백의 <행역>시에는 재주는 가지고 있으나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懷才不遇’의 심정 내지는, 뜻을 얻지 못하고 떠도는 가운데 ‘궁궐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望京戀闕)’ 심정이 드러난 詩作도 포함되어 있다. <安州應城玉女湯作>과 <奔亡道中>其三이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安州應城玉女湯作>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6) 郁賢皓의 《李白詩全集》과 詹福瑞의 《李白詩全譯》은 開元27년(739) 설을 따르고 있으며, 詹鏞,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과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는 乾元2년(759) 설을 따르고 있다.

神女歿幽境, 선녀는 그윽하고 아름다운 샘물에 몸을 던져
 湯池流大川. 이로부터 옥녀 탕의 물은 큰 내가 되어 흘러가네.

... ..

可以奉巡幸, 천자의 행차 받을 수 있건만
 奈何隔窮偏. 어찌해 궁벽한 곳에 떨어져 있는가!
 獨隨朝宗水, 홀로 큰물을 따라 흘러가서
 赴海輸微涓. 조그만 물방울이나마 바다에 보태고 싶네.

이 시는 5언 22구의 排律詩로, 시인이 開元18년(730) 安陸(현재의 湖北省 安陸市)에 머물 때 쓴 것으로 여겨진다. 첫 두 구절에서는 먼저 玉女湯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 했다. 이어서 8구에 걸쳐 옥녀탕의 신령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했다. 뒤이은 8구는 옥녀탕이 만물과 이어져 있고 모든 병을 치유 할 수 있는 효능이 있음을 묘사했다. 특히 마지막 4구에서는 천자를 보필할 수 있는 재주를 품고 있으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궁벽한 곳에 처해 있으며, 다만 큰물을 따라 흘러가서 조그만 물방울이나마 바다에 보태어, 미력한 힘이나마 군왕과 조정을 위해 일 하고 싶어 함을 토로하고 있다. 즉, ‘궁궐을 바라보고 그리워하는(望京戀闕)’ 심정이 곡진하게 나타나 있다. 明代의 簫士贊은 이 시에 대해 “이것은 비록 기영시(紀詠詩)이지만, 그 흥을 기탁함에 있어서 선비가 불행을 당하여 편벽한 먼 곳에 기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으니, 비록 왕을 모실 수 있는 재주를 품었으나 그것을 펼칠 수 없으니, 몸은 강과 바다에 있으나 마음만은 궁궐에 있으니, 슬프도다!”⁷⁾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백의 <행역>시에는 憂國의 情을 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백이 안사의 난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가며 지은 《奔亡道中》其二와 其四가 해당한다. 《奔亡道中》其二是 관직을 버리고 도망가거나 반란군에게 항복하는 관리들을 비판하였고, 其四是 반란군에게 점령당해 사람들이 오랑캐 말을 하는 등 풍속까지 변한 현실로 인해 통곡하는 내용으로 우국의 정을 드러내었다. 이밖에, 이백의 <행역>시에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사소한 일상의 일

7) 簫士贊, 《分類補注李太白詩》: “此雖紀詠詩, 然寄興則謂士不幸而居於避遠之鄉, 雖抱王佐之才而無由自達, 身在江海, 心存魏闕而已, 悲夫.” (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085쪽)

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읊은 것도 있으니, <至鴨欄驛上白馬磯贈裴侍御>와 <宿五松山下荀媪家>가 그러한 작품이다. 이 가운데 <宿五松山下荀媪家>를 살펴보자.

我宿五松下,	나, 오송산 기슭에 묵을 제
寂寥無所歡.	고요하고 적적하여 즐거운 일 없었네.
田家秋作苦,	시골집은 가을건이로 힘들고
鄰女夜春寒.	이웃집 아낙 밤에 절구질하느라 추위에 떠네.
跪進凋葫飯,	공손히 무릎 꿇고 고미밥 내오는데
月光明素盤.	달빛은 소반을 환하게 비추네.
令人慚漂母,	빨래하는 아낙에게 부끄러운 생각 들어
三謝不能餐.	세 번이나 사양하곤 먹을 수 없었네

이 시는 이백이 五松山(현재의 安徽省 銅陵市 남쪽)荀씨 부인의 집에 묵으면서 느낀 것을 읊은 것이다. 내용상 이백의 말년인 上元2년(761)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추운 날 고생하면서도 공손하게 시인을 위해 밥을 준비해 준 것에 대해 감동 하였는데, 이백 자신은 그 옛날 韓信과 같이 공을 이룬 뒤 빨래하는 아낙(漂母)⁸⁾에게 보답할 수 없는 처지이기에 선뜻 밥을 먹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백이 떠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사소한 감정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낸 작품으로, 그 표현이 매우 진솔하고 뽀진하다. 《李太白詩醇》에서는 “시골 집안의 어려운 상황을 써 내었으니, 마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듯하다”⁹⁾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이밖에, <至鴨欄驛上白馬磯贈裴侍御>에서는

8) 漂母: 빨래하는 아낙. 《史記·淮陰侯列傳》第32卷에 “회음후 한신은 회음 출신이다. … 한신이 성 아래에서 낚시질을 할 때 여러 아낙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아낙이 한신의 배고픔을 살피고 그에게 밥을 주었는데, 빨래를 다 마칠 때까지 수십일 동안 주었다. 한신이 기뻐하며 “제가 그대에게 만드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자 그 여인이 화를 내며 “사내대장부가 제 힘으로 밥도 못먹기에 내가 그대를 불쌍하게 여겨 밥을 주었을 뿐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라 하였다. … 한신이 초나라에 이르러서는 이전에 자신에게 밥을 먹여준 빨래하는 아낙을 불러서 천금을 하사하였다(陰侯韓信者, 淮陰人也. … 信釣於城下, 諸母漂, 有一母見信飢, 飯信, 竟漂數十日. 信喜謂漂母曰: ‘吾必有以重報母’ 母怒曰: ‘大丈夫不能自食, 吾哀王孫而進食, 豈望報乎?’ … 信至國, 召所從食漂母, 賜千金”)라는 전고가 있음. (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140쪽)

9) 《李太白詩醇》 卷4: “村家苦況寫出, 如耳聞目見.” (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141

“그대와는 정이 깊어 (그대의) 총마 피하지 않으니, 그대 또한 날 위해 서릿발 같은 표정 누그러뜨리네(情親不避馬, 爲我解霜威)”라고 하며, 스스럼없이 사귀는 두 사람 사이의 넉넉한 우정이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3. 李白 <行役>詩의 창작상의 특색

이백의 <행역>시는 그 내용과 예술창작 기교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文選》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비교적 농후하다. 둘째, 시가 속에서 ‘水平’ 이동의 속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시인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그대로 이입하고 있다. 셋째, 시가의 창작 면에서 浪漫적 묘사가 상당하다. 그럼 아래에서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자.

(1) 농후한 《文選》 영향의 흔적

이백의 <행역>시가 蕭統 《文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로 《文選》의 <行旅>편의 형식과 내용을 상당부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백의 <행역>시는 그 제목의 형식과 시의 내용면에 있어서, 《文選》의 <행려>편과 흡사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띈다. 먼저, 시의 제목에 있어서, 《文選》의 <행려>편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제목을 정했다. 첫째는, 地名을 써서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시간과 장소를 써서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며, 셋째는 이동의 동사, 즉 入(들어가다), 還(돌아오다), 發(출발하다) 등의 동사와 지명을 결합하여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백의 <행역>시 역시 이러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백의 <행역>시에는 <客中作>을 제외 하고, 모든 시작이 그러한 방식으로 제목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夜下征虜亭>, <下陵陽沿高溪三門六刺灘> <秋下荊門>, <秋下荊門>. <下途歸石門舊居>, <上三峽>, <荊門浮舟望蜀江>, <自巴東舟行經瞿唐峽登巫山最高峰晚還題壁>, <早發白帝城>, <江行寄遠> 등은 모두 ‘下(내려가다)’, ‘上(올라가다)’, ‘浮(배를 띄우다)’, ‘望(멀리 바라보다)’, ‘發(출발하다)’, ‘行(가다)’ 등의 동사와 지명 혹은 장소를 결합해 제목을 취했고, <夜泊黃山聞殷十四吳吟>, <之廣陵宿常二南郭幽居>, <宿鰈湖>, <宿五松山下荀媪家> 등은 ‘泊(배를 배고 머물다)’, ‘宿(묵다)’ 등의 동사와 장소를 결합해 제목을 취하고 있으며, <太原早秋>, <郢門秋懷> 등은 지명과 계절을 결합해 제목을 취하는 등, 《문선》의 방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백의 <행역>시는 그 내용에서도 《문선》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現代의 鄧偉月的 <‘文選’行旅詩研究>에서는, 《文選》에 실린 <행려>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문선》의 <행려>시를 종합해 보건대, 그 수록된 시가는 모두 벼슬살이 길의 행역의 작품으로, 시인은 여로에서 본 경물을 묘사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이 느낀 바를 솔히 하거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서술하거나, 은거하여 돌아갈 소원을 토로하거나, 혹은 궁궐을 그리워하는 뜻을 솔히하였다.¹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앞장에서 살펴 본 이백의 <행역>시에서 포함하고 있는 山水紀行, 나그네의 情懷, 隱逸 동경 및 ‘望京戀闕’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어, 이 둘의 계승 관계를 충분히 짐작케 해 준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백의 <행역>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山水紀行의 내용으로 전체의 약 38%이며, 또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거나 혹은 은일을 동경하는 내용 등을 표현 할 때에도 시의 일정 부분에서는 산수에 대한 풍경 묘사

10) 鄧偉月, <‘文選’行旅詩研究>: “總覽《文選》行旅詩, 其收錄的詩歌都是宦途行役之作, 詩人在描寫途中所見景物的同時, 亦敘發自己的內心感受, 或敘家園之思, 或露歸隱之願, 或懷戀闕之意。”(《商業文化》, 2015年 1月, 111쪽)

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점 역시 《문선》의 그것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선》 <행려>편에는 산수의 묘사에 큰 비중을 둔 謝靈運의 작품이 10수로 가장 많이 실려 있으며, 반대로 功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求仕'에 대한 큰 열망을 시에서 표출하던 '行旅'의 작품을 다수 창작했던 鮑照(415-466)의 작품은 단지 1수만을 수록하고 있다. 즉, 蕭統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동하는 도중에 눈에 보이는 산수의 경물을 주로 묘사하는 가운데, 거기서 느끼는 情懷를 표현하는 것에서 <행려>시의 本色을 찾은 듯하다. 다시 말해, 이백의 <행역>시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문선》 <행려>편의 창작 경향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이백은 그러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至鴨欄驛上白馬磯贈裴侍御>나 <宿五松山下荀媪家>처럼 '행려' 중에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소박한 감정들을 더욱 세밀하게 드러낸 작품도 창작했던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2) 이동 속도에서의 감정 이입

이백의 <登覽>詩篇이 기본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上下' 공간의 이동을 묘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행역>시편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水平' 이동하는 동안의 묘사와 느낌을 묘사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백의 <행역>시에는 그러한 '수평' 이동의 속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시인의 심리상태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인이 감정이 좋은 상태거나 혹은 쾌활한 경우에는 <행역>시에서 표현된 공간 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묘사되지만, 그 반대로 시인의 마음 상태가 여의치 못하거나 혹은 울적한 상황이라면,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묘사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침에 백제성을 떠나다(早發白帝城)>를 살펴보자.

朝辭白帝彩雲間,

아침 꽃구름 속에서 백제성을 떠나

千里江陵一日還。
兩岸猿聲啼不盡。
輕舟已過萬重山。

천리 길 강릉을 하루 만에 돌아가네.
양쪽 언덕엔 원숭이 울음소리 그치지 않는데
가벼운 배는 이미 만 겹의 산을 지나갔네.

이 시는 이백의 칠언절구중의 으뜸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역대로 이 시는 수많은 호평을 받았다. 대표적인 경우로, 明代의 楊慎은 《升庵詩話》에서 “바람도 비도 놀라게 하고, 귀신도 울게 한다.(驚風雨而泣鬼神矣.)”¹¹⁾라며 극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시인이 乾元2년(759) 夜郎으로 유배를 가다가 사면을 받고나서 다시 三峽을 지나 강릉으로 돌아가면서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百帝城은 현재의 四川省 重慶市의 奉節縣이다. 제1, 2구는 아침에 백제성을 떠나 하루 만에 강릉에 이르는 여정의 빠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면을 받고나서 하루라도 빨리 지인이 있는 강릉으로 가고자 하는 시인의 유쾌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다. 제3구와 제4구는 여정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원숭이 울음소리와 첩첩산중 사이로 경쾌하게 지나가는 배의 모습이 매우 생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사면의 기쁨으로 인한 유쾌한 심정이 빠른 공간의 이동 묘사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위의 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면을 받고 백제성에서 나와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荊門에 이르러 지은 <형문산에서 배를 띄워 놓고 촉강을 바라보네(荊門浮舟望蜀江)>에서는, 먼저 형문산에서 보이는 경물을 묘사하다가 맨 끝에서 “먼 불빛은 강릉임을 알게 하니, 곧 저궁성에 이르리라(江陵識遙火, 應到者宮城)”라고 하여, 빠른 공간적 이동을 통해 마음은 이미 강릉에 도착한 듯 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반면, 시인의 심정이 울적하거나 여의치 않은 순간에는 그 공간의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예로 <삼협을 거슬러 올라가다(上三峽)>을 살펴보자.

巫山夾青天, 무산은 푸른 하늘을 끼고 있고

11) 楊慎, 《升庵詩話》: “驚風雨而泣鬼神矣.”(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132쪽)

巴水流若茲. 파수도 이와 같이 흘러가네.
 巴水忽可盡. 파수는 금방이라도 다 갈 것 같지만
 青天無到時. 푸른 하늘은 너무 높아 오를 수가 없네.
 三朝上黃牛. 사흘 아침 내내 황우협을 거슬러 올라도
 三暮行太遲. 사흘 저녁 동안 가는 것은 너무 더디네.
 三朝又三暮. 사흘 아침 또 사흘 저녁
 不覺鬢成絲. 어느새 귀밑머리 반백 되었네.

이것은 이백이 乾元2年(759)에 夜郎으로 유배 가는 도중 三峽을 거슬러 올라가며 지은 것이다. 제1, 2구는 시인이 三峽 협곡 밑에서 무산 봉우리를 올려다보는 경치를 말한 것으로, 무산의 높은 하늘과 파수의 급류를 형상적으로 묘사했다. 제3, 4구는 巴水の 유한함과 青天의 무한함을 대비시켰으며, 제5, 6구는 삼협의 험준함과 오르기 어려움을 “三朝” “三暮”의 숫자를 통해 강조했다. 마지막 제6, 7구는 여정의 어려움을 통해 시인의 근심을 완곡하게 그려내었다. 주의 할 것은, 유배지인 야랑으로 향해 가는 근심어린 심정으로 인해 시속에서는 “사흘 아침 내내 황우협을 거슬러 올라도, 사흘 저녁 동안 가는 것은 너무 더디네(三朝上黃牛, 三暮行太遲)라고 하는 등, 공간의 이동 속도를 매우 느리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역시 유배를 당해 야랑으로 가는 도중에 지은 <파동에서 배타고 구당협을 지나며 무산의 최고봉에 오르고, 저녁에 돌아와 벽에 시문을 쓰다(自巴東舟行經瞿唐峽登巫山最高峰晚還題壁)>에서는 “강 따라 수천리 길, 강위로 달이 열다섯 번 둥글어졌네(江行幾千里, 海月十五圓)”라고 읊어 <早發白帝城>에서 “천리 길 강릉을 하루 만에 돌아가네(江里江陵一日還)”라고 한 부분과 그 속도감에서 확연한 대조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안록산의 난을 당해 피난하는 가운데 창작한 <피난 길에서 쓴 다섯 수(奔亡道中五首)>의 其一에서는 “첩첩이 관문으로 막혔으니, 언제라야 돌아갈 수 있으리(萬重關塞斷, 何日是歸年)”라고 읊어, 공간적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함으로써 시인의 절박한 처지를 더욱 극대화 하고 있는 듯하다. 바로 이렇듯 ‘水平적 공간 이동을 주로 염두에 둔 이백의 <행역>시편에서는 그 속도감으로써 시인의 감정

을 표현하는 일종의 ‘감정이입법’을 구사하고 있었던 셈이다.

(3) 뛰어난 낭만적 묘사

이백의 시가는 그 표현 기법 상에서 과장을 통한 비유, 時空을 넘나드는 풍부한 상상력 및 虛構의 경물 묘사 등을 통한 낭만적인 묘사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공간의 이동에 따르는 산수 경물의 묘사가 큰 축을 이루는 <행역>시편의 경우 그러한 낭만적 묘사는 더욱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그 예로 앞장에서 예로 들었던 <안주의 응성에 있는 옥녀 탕에서 짓다(安州應城玉女湯作)>의 全篇을 살펴보자.

神女歿幽境.	선녀는 그윽하고 아름다운 샘물에 몸을 던져
湯池流大川.	이로부터 옥녀 탕의 물은 큰 내가 되어 흘러가네
陰陽結炎炭.	음양의 기운은 불타는 석탄 만들고
造化開靈泉.	조화옹은 신령한 온천을 끊게 하였네.
地底爍朱火.	지하에서는 시빨진 불길의 타오르고
沙傍歛素烟.	모래 주위로는 하얀 수증기 피어오르네.
沸珠躍晴月.	끓어 오르는 물방울은 밝은 달 아래에서 튀어 오르고
皎鏡涵空天.	거울처럼 맑고 투명한 물은 하늘을 담고 있네.
氣浮蘭芳滿.	수증기 떠다니니 난초 향 가득하고
色漲桃花然.	넘치는 물빛에는 복숭아꽃 불타는 듯 하네
精覽萬殊入.	자세히 보니 물 위로는 만물이 비추어 들고
潛行七澤連.	땅 밑으로 흘러 칠택과 이어지네.
愈疾功莫尚.	병을 낫게 하는 효험 이보다 뛰어난 것 없고
變盈道乃全.	가득차면 이지러지는 도리를 모두 갖추었다네
濯纓掬清泚.	맑은 물 두 손으로 떠서 갓끈 씻고
晞髮弄潺湲.	잔잔한 물가에서 물장난하며 머리를 말리네.
散下楚王國.	옥녀탕 물은 흘러 퍼져 초나라로 내려가고
分澆宋玉田.	갈라져서 송옥의 문전옥답에 물을 대네.
可以奉巡幸.	천자의 순행 받을 수 있건만
奈何隔窮偏.	어찌해 궁벽한 곳에 떨어져 있는가!
獨隨朝宗水.	홀로 큰물을 따라 흘러가서

赴海輪微涓. 조그만 물방울이나마 바다에 보태고 싶네.

이 시를 다른 각도에서 눈여겨 볼만 한 것은, 이 시는 곳곳에서 과장의 비유 및 전설을 토대로 한 낭만적인 묘사가 구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이 시는 선녀가 몸을 던져 만들어진 '玉女湯'의 전설¹²⁾을 토대로, 炎炭, 朱火, 素烟, 沸珠, 晴月, 蘭芳, 桃花, 潺湲 등의 시각적, 청각적, 생동적 언어들을 적극 운용하여 옥녀 탕의 뜨거운 열기, 하얀 수증기, 끓어 오르는 물방울, 사방으로 퍼지는 난 향기, 桃花 같은 색채 등을 매우 낭만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땅 밑으로 흘러 칠택과 이어지네(潛行七澤連)"라고 하거나, "퍼져서 초나라로 내려가고, 갈라져서 송옥의 문전옥답에 물을 대네(散下楚王國, 分澆宋玉田)"라고 하는 등, 과장의 수법을 사용하여 시를 더욱 환상적인 경지로 끌어 올리고 있다.

이어서 <능양에서 내려와 고계, 삼문, 육랄탄의 물을 따라 내려가며(下陵陽沿高溪三門六刺灘)>을 살펴보자.

三門橫峻灘.	삼문산은 험준한 여울에 가로로 뻗어있고
六刺走波瀾.	육랄탄 여울물은 물결 일으키며 세차게 흐르네.
石驚虎伏起.	괴석들은 엎드린 호랑이가 놀라 일어나는 듯
水狀龍縈盤.	강물은 용이 마치 서린 듯하네.
何慚七里灘.	어찌 칠리뢰보다 못할 손가?
使我欲垂竿.	나에게 낚싯대 드리우려는 마음 일게 하누나.

12) 玉女湯: 《藝文類聚》卷9의 水部에서 "(南朝·宋) 盛弘의 《荊州記》에 '新陽縣 惠澤 가운 데 溫泉이 있는데 겨울에 몇 리를 이르지 않아도 흰 기운이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멀리서 보이는데, 위 아래로 광채가 빛나고 모습이 기소와 같았다. 또 수레바퀴에 두 끝채가 있는 모습이 있었다. 세상에 전하길, '옛날에 玉女가 있었는데 수레를 타고 이 섬에 몸을 스스로 뛰어들었다. 지금 사람이 당시 여자를 만났는데, 땀시와 거동이 빛나고 고왔으며 오고 감이 매우 빨랐다'(新陽縣惠澤中有溫泉, 冬月, 未至數里, 遙望白氣浮蒸如烟, 上下采映, 狀若綺疏. 又有車輪雙轆形, 世傳: '昔有玉女, 乘車自投此泉. 今人時見女子, 姿儀光麗, 往來倏忽.))'라고 하였다. 또한 《明一統志》卷61에는 "玉女泉은 湖廣 德安府 應城縣 서쪽 55리에 있는데 그 온천은 뜨겁게 끓어 올랐다. 村老들은 서로 전하길, '玉女는 단약을 만드는 지역이다'라고 하였다(玉女泉, 在湖廣 德安府 應城縣西五十五里, 其泉熱沸, 野老相傳: 玉女煉丹之地.)"라는 전고가 보인다. (詹鍈, 《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 3080쪽)

이 시는 시인이 약 天寶14년(755)에 현재의 安徽省 宣州에 있는 陵陽山에서 내려와 澗灘의 상류인 高溪, 三門, 六刺灘을 지나가며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뛰어난 경치를 묘사하는 가운데 은거의 뜻도 드러내고 있으며, 눈앞의 풍경을 묘사함에 있어서 과장과 비유의 수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낭만적인 색채를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처음의 두 구절에서는 삼문산의 험준함을 '횡으로 뻗어 있다(橫)' 라고 하거나, 육탈탄의 물결이 '달리다(走)'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3, 4구에서는 괴석들이 호랑이 놀라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강물은 용이 꼬리를 틀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물론 이렇듯 풍부한 상상력에서 비롯된 과장과 비유의 수법은 이백의 시로 하여금 더욱 낭만적인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밖에, <下途歸石門舊居>에서 “꿈속에서 자주 신선 산에서 놀았으니, 어느 때나 신발 벗어던지듯 속세를 떠나, 호리병속의 仙境에 들어 갈 수 있을까?(夢中往往遊仙山, 何當脫屣謝時去, 壺中別有日月天)”라고 하거나, <郢門秋懷>에서 “헛되이 창오까지 찾아가 순임금을 찾아뵈고, 부질없이 바다를 건너가 명해의 신선을 찾았네. 일찍이 봉래의 바닷물이 얕아진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만, 어찌 선도가 세 번이나 익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空謁蒼梧帝, 徒尋溟海仙. 已聞蓬岳淺, 豈見三桃園)”라고 읊거나, 혹은 <至鴨欄驛上白馬磯贈裴侍御>에서 “어지러이 흐르는 강물 번개 휘도는 듯하고, 샛대질에 달빛 구슬은 물위로 튀네(亂流若電轉, 舉棹揚珠輝)”라고 노래한 것들은 모두 낭만적인 전설이나 신화에 바탕을 두거나 혹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한 과장과 비유의 수법을 사용한 것이니, 바로 이러한 낭만적 시가 표현 기법은 이백의 <행역>시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이백은 일찍부터 많은 漫遊를 경험했으며, 또한 安史의 난과 유배 등을 겪으면서 자의든 타의든 수많은 지역을 섭렵하였다. 이백의 <행역>시편은 바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주로 '상하'의 공간 이동은 <登覽>의 시편으로 분류하였던 반면, '수평'의 공간을 이동하거나 머무는 시편은 <행역>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이백의 <행역>시는 그 내용상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수평' 이동하는 동안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묘사하는 것에 치중한 '山水紀行'의 내용이다. 둘째, 주로 타향을 떠도는 나그네의 신분으로 고향, 친구 및 임을 그리워하거나 혹은 타향에서 겪는 나그네의 수심을 달래는 내용이다. 셋째, 산수를 유람하는 가운데 隱者의 풍모를 동경하거나, 혹은 시인 자신의 隱逸의 뜻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넷째, 기타의 부류로, 스스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나 그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이른바 '懷才不遇'의 심정을 토로하거나 혹은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가운데 임금이 계신 '궁궐'을 바라보며 임금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거나, 혹은 나라를 걱정하는 憂國의 情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위와 같은 내용은 대부분이 《文選》의 <行旅>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으로, 결국 그 내용상 이백의 <행역>시편은 《文選》의 <行旅>을 많이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 내용 뿐만 아니고, 시의 제목을 정하는 방식에서도 《文選》의 <行旅>을 많이 계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백은 시의 제목을 地名을 써서 제목을 정하거나 혹은 시간과 장소를 써서 제목을 정하거나 혹은 이동의 동사, 즉 入(들어가다), 發(출발하다), 下(내려가다), 宿(묵다) 등의 동사와 지명을 결합하여 제목을 정하는 등, 《文選》의 <行旅>에서 제목을 정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결국 이백의 <행역>시편은 《文選》의 <行旅>을 그 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부분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백의 <행역>시는 그 예술 창작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그 하나는 공간의 이동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그 이동의 속도에 이입시키고 있었다. 즉, 시인의 감정이 좋은 상태거나 혹은 쾌활한 경우에는 <행역>시에서 표현된 공간 이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묘사되지만, 그 반대로 여의치 못한 심정이거나 혹은 울적한 마음이 드는 경우에는, 그 속도가 매우 느리게 묘사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백의 <행역>시에는 뛰어난 낭만적 묘사가 다수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백의 <행역>시에는 시인의 풍부한 상상력을 토대로 한 각종 과장법이나 비유법 혹은 신화나 전설 등을 통한 농후한 낭만적 묘사가 우수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바로 위와 같은 특색들로 인해, 이백의 <행역>시는 하나의 범주나 주제로 묶어서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었던 셈이다. 이백의 <행역>시는 이백의 전체 시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나 혹은 거시적인 고대 <행역> 시가의 발전 양상의 이해를 위해서나 모두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一環이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大野實之助,《李太白詩歌全解》,東京:早稻田大學出判部,1980.
- 丁放,袁行霈,《盛唐詩壇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2.
- 王琦 輯注,《李太白詩集注》,北京:中華書局,1977.
- 安旗 主編,《李白全集編年注釋》,成都:巴蜀書社,1990.
- 宋敏求·曾鞏 等編,《李太白文集》,成都:巴蜀書社,1985.
- 郁賢皓,《新譯李白詩全集》,臺北:三民書局,2011.
- 遼欽立,《先秦漢魏晉南北朝詩》,北京:中華書局,1995.
- 陳伯海主編,《唐詩彙評》,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6.
- 陳貽焮主編,《增訂注釋全唐詩》,北京:文化藝術出版社,2001.
- 葛景春,《李白研究管窺》,保定,河北大學出版社,2002.
- 詹鍈 主編,《李白全集校注彙釋集評》,天津:百花文藝出版社,1996.
- 詹福瑞·劉崇德·葛景春,《李白詩全譯》,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1997.
- 蕭士贊,《分類補注李太白詩》,北京:北京圖書館出版社,2003.
- 胡志澤,〈中國行旅文學發生論綱〉,《淮北煤師範學報》,1994年,3期.
- 張瑞君,〈李白山水詩的獨特品格〉,《西南大學學報》,2006年,11月.
- 劉亞平,〈唐代行旅詩研究〉,《旅遊研究》,2012年,3期.
- 鄧偉月,〈‘文選’行旅詩研究〉,《商業文化》,2015年 1月.
- 叢煒莉,〈魏晉南北朝時期行旅詩研究〉,《牡丹江師範學院學報》,2009年,4期.

<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poetry of “XingYi” by Li Bai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s in it.

First, this poetry mainly includes appreciating scenery, longing for friends, the yearning for Yinyi, and other things. The majority of appreciating scenery is composed of depicting natural scenery in motion. The author Li Bai also describes the longing for his home town and friends. Furthermore, The yearning for Yinyi incorporates the desire to live with Taoist hermits in remote forests. In the remaining parts, he expresses his sorrows for not being able to fulfill his will and longing for the Palace.

The poetry of XingYi was influenced by Xiaotong’s Wenxuan in its content and format. In addition, the author describes the speed of moving quite fastly in joyful feelings and depicts it quite slowly in adverse or sad feelings. Finally, the author utilized hyperbole, simile, and abundant imagination which renders this poetry masterfully romantic.

Key words: Li Bai, XingYi’ Poetry, ShanShui’ Poetr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9. 30.	2015. 10. 19.	2015. 11. 6.	2015. 11. 9.	2015. 11. 30.